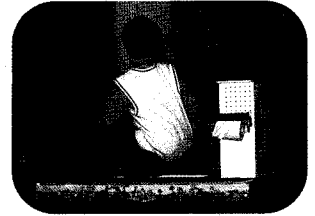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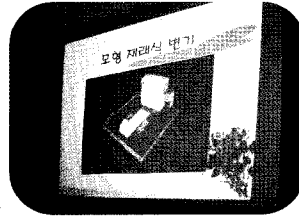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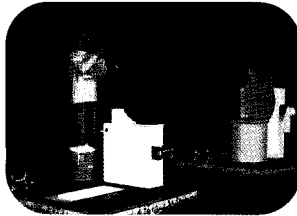


Daelim ACADEX 2002

대림 아카데미스 2002



1. 대림아카데미스 2002에 참석한 심재덕 회장 / 2. 서울보광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연장면 / 3. 최태종 선생님이 제작한 모형재래식 변기 / 4. 올바른 화장실 사용을 돕는 도우미 어머니



글. 김연식
/한화협 연구실장/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화장실문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대림아카데미스(Daelim ACADEX)가 2회를 맞이하였다.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라는 대 명제 아래 '교육기관 화장실문화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2년 11월 7일 오후 2시 대림대학 한림관에서

대림대학 주최로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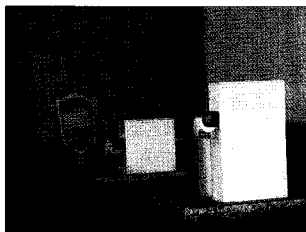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이정국 대림대학장의 인사말과 심재덕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표혜령(화장실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최태종(보광초등학교 교사), 심형섭(대림대학교 건축과 교수), 염태영(수원화장실문화협의회 회장), 이창국(크린코리아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다.

심재덕 회장은 축사에서 화장실문화는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하여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며 2008년 중국 북경 올림픽을 겨냥하여 우리의 선진문화와 기술을 전파하여야 한다고 축사를 하였다.

표혜령 사무국장은 화장실 이용자가 지켜야할 에티켓과 화장실관리자가 지켜야할 에티켓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화장실 문화의 정착은 이용문화 즉 화장실 에티켓의 정착여부에 따라 향상이 될 수도 있고, 낙후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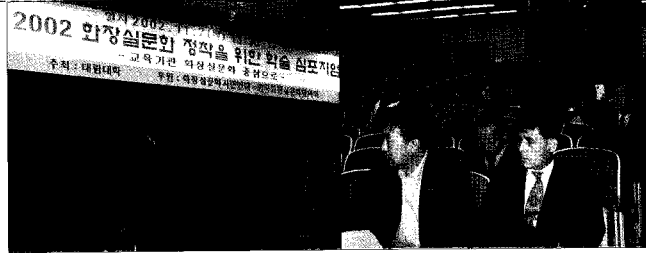
올바른 화장실문화정착을 위한 모형 기자재

생각한다' 라고 화장실에티켓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미나실 안에는 서울 보광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도우미 어머니회를 비롯하여 대림대학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화장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 사용지도'를 위한 집단지도 프로그램 구안적용, 주제발표에 나온 최태종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용 모형기자재를 직접 제작하여 보광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장면을 시연함으로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어린이들이 부르는 화장실송이 세미나실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가운데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로 넘어갔다.

'Color Simulation을 이용한 화장실 건축의 접근방법'이란 주제로 심형섭 대림대학 건축과 교수의 발표에서는 3D를 이용한 가상건축을 여러가지 형태의 Color Simulation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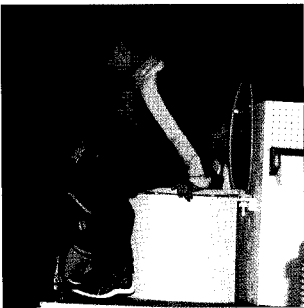


Daelim ACADEX 2002

5 | 6 | 5.이재국 대림대학장의 축사 / 6. 대림아카데미스 2002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모든 주제발표를 마치고 주최측에서 마련한 다과회에서 참여자들은 뜻다한 의견을 나누며 결론적으로 학교 화장실의 개선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짚은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 공중화장실의 개선을 성공적으로 창출하였던 힘과 저력으로 21세기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어린이들이 모형기자재를 시연하고 있다.

통해 여러가지 견본 중에서 선택하여 Remodeling 하는 방법으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과정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사비 절감의 효과가 있어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화장실 개선운동의 사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연태영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 회장은 학교화장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일본 학교화장실의 개선운동의 소개와 수원시 학교화장실 개선운동사례를 소개하면서, "21세기 꿈나무들이 자라는 학교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최소한 인간의 원초적 기능인 용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그곳에서 문화와 환경을 배우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주)크린코리아 이창국대표는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관리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 인구의 전체 26%가 학생과 교직원임을 감안할 때 학교환경 즉 화장실 위생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비교적 적응력이 약하고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학생들이 모인 지역사회이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 등에 접하게 되므로 학교환경은 교육효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학교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시급히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모든 주제발표를 마치고 주최측에서 마련한 다과회에서 참여자들은 뜻다한 의견을 나누며 결론적으로 학교 화장실의 개선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짚은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 공중화장실의 개선을 성공적으로 창출하였던 힘과 저력으로 21세기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나의 작은 배려가 아름다운 화장실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처럼 지금 우리의 작은 관심과 모임으로 시작하여 세계의 모든 학교에서 우리 나라 학교 화장실을 견학하러 오는 날을 기대하며 2002 대림 아카데미스가 학교 화장실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